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만공 스님(2)

만공, 배가 가는 것이냐, 섬이 가는 것이냐

해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들어올린다 (마음이 움직인 것!)

어느 날 만공(滿空, 1871~1946) 스님, 해암 스님, 진성 사미가 함께 배를 타고 간월도의 간월암을 찾아가던 적이 있었다. 배가 물살을 가르며 섬을 향해 움직이자 주변의 작은 섬들이 서서히 지나가는 것을 물고래미 지켜보던 만공 스님이 옆에 있는 진성 사미에게 물었다.

“배가 가는 것이냐, 섬이 가는 것이냐?” 그러자 진성 사미는 한 겹을 물러나 차수(손을 모으는 것)하고 서 있었다.

그때, 해암 스님이 말했다. “스님, 저에게도 물어봐 주십시오.” “오, 그래. 해암 수좌, 배가 가는 것인가? 섬이 가는 것인가?”

“배가 가는 것도 아니고 섬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심전심’으로 제자의 의도 간파

‘비풍비번(非風非幡)’ 공안과 유사

“그럼 무엇이 가는가?” 해암 스님은 아무 말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어올렸다.

그러자, 만공 스님은 감동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 해암 수좌, 자네 공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된 지 좀 되었습시다.” 만공 스님과 해암(惠菴, 1886~1985) 스님의 한 쪽의 그림 같은 이 선문답은 육조혜능 스님의 것

발에 대한 선화와 매우 유사하다. 이른바 ‘비풍비번(非風非幡)’ 공안은 혜능 스님이 중국 남쪽의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을 때, 마친 깃발이 필력이

는 것을 보고 대중들이 무엇이 흔들리는 것인가에 대해 활가활부(曰可曰否) 하고 있을 때 나온 일화다.

대중의 한 쪽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다’고 했고, 한 쪽은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자 혜능 스님이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모여 있던 대중이 크게 놀랐다고 한다.

만공-해암 스님의 문답은 ‘비풍비번’ 공안과 비슷한 스토리의 대화가지만, 더욱 격조가 높다. 즉 구차한 말로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의 즉각적인 동작으로 드러낸 점에서 혜능 스님의 법문을 뛰어넘어 조사의 은혜에 보답했다고 할만한 탁월한 문답이라 할 수 있다.

만공 스님은 뛰어난 두 제자의 공부를 위해 일상 중의 경계를 가지고 “배가 가는 것이냐, 섬이 가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해암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어올리는 것으로 답을 했다. 그렇다

면 이 행위 가 혜능 스님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는

답과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물론 그 뜻은 다르지 않지만, 해암 스님은 ‘마음이 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바로 보이는 방법(동작)을 대신 썼다.

만약 혜능 스님의 말을 모방해 똑같이 말했다면 앵무새라는 핀잔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말을 내세워 설명했으니 ‘벌써 제2구(句)에 떨어졌느니라’ 라는 만공 스님의 질책을 받았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해암 스님은 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란 언어 대신,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들어올림으로써 마음을 바로 보인 것이다.”

이 뜻밖의 행동에 만공 스님은 손수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때 스님은 제자의 의도를 간파

했다. ‘이 손수건을 보는 그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라는 해암의 말없는 말을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알아차

리고, 제자의 공부를 인정할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 내 안의 부처 찾는 길 보이는가?

## 부산 미타선원, 효산 스님 초청 ‘간화선 특별법회’ 회향

부산의 5대 명당에 자리잡고 있는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립). 좌청룡 우백호의 두 산을 양 날개로 하여 부산항을 내려다 보고 있는 미타선원은 아미타부처님을 모시고 사바세계의 험난한 바다를 건너 불국토로 나아가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의 형국이다.

1년 7개월 전, 하립 스님이 4년 동안 미국 불광선원에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다 귀국해 주지를 맡은 후 미타선원(mitazen.net)은 많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의 신도교육과 포교에다 참선과 염불을 두 바퀴로 하는 수행을 강조하면서, 어느덧 부산의 유력한 수행도장으로 떠올랐다. 참문을 열면 용두산의 바람소리, 남해바다의 파도소리가 어우러져 일상에 지친 심신을 편히 쉴 수 있는 선방은 어느덧 시민들이 즐겨찾는 수행처가 된 것이다.

게다가 지난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효산 스님(효산선원장) 초청, ‘내 안의 부처를 찾는 길-간화선 특별법회’는 50여 동인간 결제 대중과 시민들이 참선의 노하우를 터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마음과 몸 그리고 말의 원리, 마음의 힘을 찾아 쓰는 법, 간화선의 여섯 가지 수행과정 등 효산 스님이 오랜 실참을 통해 체득한 공부법을 전해주시며 불자들이 바른 신심과 안목을 갖추고 용맹정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려일으켰다.

제자자들이 갈피를 잡기 힘든 간화선을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지도해 온 효산 스님은 1934년 전남 순창에서 출생, 13세에 고암 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 했다.

17세부터 통도사, 해인사 등 제방 선원에서 40여 년간 용맹정진한 끝에 ‘이렇고?’ 화두를 타파한 스님은 “일체중생이 본래부처(本來佛)의/ 밤중의 암흑(夜中暗黑)이 모두 밝음(皆見明)이라/ 근본은 색도 아니요(非色) 한 물건도 없는데(無一物) 일체의

곳에 따라(一切隨處)에 청·황색을 드러낸 다(現靑黃)”는 오도송을 읊었다.

5년 전부터 부산에 효산선원을 열어 재가자를 지도하고 있는 스님은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미타선원(051-253-8687) 신도를 위한 정기 점검과 지도에도 나설 예정이다.

효산 스님은 평소 올바른 수행에 앞서 몸과 마음, 말의 원리를 알아서 기초를 다져야

없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다 이 마음을 쓰고 있다. 이 세계는 허공계이고, 이 허공계는 허공(虛空), 바람, 전파(電波), 공기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허공계 전체를 아우르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강하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겨우 쓰고

가야 한다. 먼저 의심을 딱 잡아 몰아서 힘을 얻어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하면 결국 동정일여(動靜一如)가 된다. ① 동정일여란 앉으나 서나 가나 누우나 깨어 있을 때나 잠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의정이 끊어지지 않고 화두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동정일여가 계속 유지되면 ② 몽중일여(夢中一如)하여 항상 꿈에도 의정이 끊어지지 않아 그 의심명어리를 잡고 몰아붙인다. 꿈속에서도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삼매(三昧)가 유지된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③ 숙면일여(熟眠一如)의 단계이며 깊은 잠에서도 의정이 떠나지 않는다. 오매일여(寤寐一如)라고도 하며, 깨어 있거나 잠에 빠져있거나 항상 삼매가 유지된다. 이 단계를 불퇴전(不退轉)의 경지라고 하는데, 다시는 보살 사람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면, ④ ‘성성적적(惺惺寂寂)’이라 하는데, 뚜렷하게 화두의 의심을 들고 있지만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고 요함을 지키는 단계이다.

이 자리를 놓고 말마 스님이 <백맥(血脈圖)에서 “마음이 장벽 같이 되어야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 있다(心如牆壁 可以入道)”고 했다. 이를 은산철벽(銀山鐵壁)이라고도 한다.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즉 버람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경지이다.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몰아붙이면 결국 ⑥ 확철대오(廓徹大悟)한다. 그 자리를 비로소 ‘견성했다’, ‘잠 도인이 됐다’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내외명찰(內外明察)이라고도 한다.

### 육신통이 나와야 진정한 확철대오

확철대오하면 곧 바로 육신통(六神通)을 갖출 수 있다. 육신통이 나와야 진정한 확철대오가 전에 나오는 신통은 경계해야 하지만 확철대오 후엔 의무적으로 육신통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공부해온 과정을 점검해 봐야 한다.

간화선은 화두 하나 타파하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다. 하나를 알면 다 알아야 하고, 하나를 모르면 다 몰라야 되는 것이다. 간화선에서는 진로를 모르고 공부를 하면 여러가지 경계에서 도인이 된 걸 알고 어긋난 길로 접어들게 된다. 간화선을 하다가 의선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확철대오 이후에는 보림(寶林: 돈오 이후에 습기(習氣)를 제거하면서 성태(聖胎)를 키우는 공부)에 들어가서 불지(佛地)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보림 공부는 북과 지혜가 함께 오르도록 노력해야(福慧雙修) 하며 많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

부산 미타선원=김성우 객원기자



효산 스님이 ‘내 안의 부처를 찾는 길’을 법문하고 있다.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화두에 의심을 잡아서 몰아붙이는 정확한 방법과 올바른 진로를 알고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갖춰야만 마음의 위대한 힘을 찾아서 100% 깨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만 하되,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법에 대한 법문은 듣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6월 16일 회향법문에서 효산 스님은 그동안 7회에 걸쳐 진행한 선법문을 다시 간추려 들려주었다. 이날 법문을 요약 정리한다.

### 마음의 위대한 힘을 찾아 쓰라

마음을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다. 일체의 형상이

있을 뿐이다. 만약 알고 쓴다면 전 우주와 일체 물질계를 포함하는 허공계를 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 힘은 어느 누구보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 힘을 찾아 쓰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장애에 처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마음을 찾아 쓰는 법을 가르치셨고, 그 후로도 모든 도인(道人)과 스님들께서 그것을 깨우쳐 중생에게 베풀기 위해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다.

### 간화선의 여섯 가지 수행 과정

‘무엇이 이 몸을 가지고 다니고?’ 할 때, ‘고’ 자에서 알 수 없는 의심을 딱 잡아

**아파트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파트 센터**  
아파트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동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safarcenter.co.kr  
E-mail: heegyun@naver21.com

**수행개시편**

- 신유신론 강의-서울 동천학원은 7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송천우 중앙승가대 교수의 신유신론 강의를 개설한다. 교재는 응심력(應心力)의 《新唯識論》, (02)732-3008
- 선강(禪講) 및 참선실수-부산불교교육대학은 매주 월요일 저녁 7~9시, 상암법사 겸 원장인 이도원 법사의 지도로 선강(禪講) 및 참선실수를 진행한다. (051)711-0700
- 우편나미 스님 여름집중수행-남양주 봉인사는 7월 2일부터 29일까지 우편나미

미(U. Pannatham): 우편나미 선사의 수제자 스님 초청 여름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7월 2~8일은 기초수행(기과)과 수행, 의식개발 프로그램, 7월 9~29일은 위빠사나 본수행으로 진행. (031)574-5585

● 아라라 스님의 여름집중수행-아라라 스님(갈마니타 명상선원장)은 7월 22일~8월 16일 죽산 도피인사에서 위빠사나 여름집중수행을 연다. 매일 법문과 인덕부도 진행. (011)520-0100

외불 범등인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변화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음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악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외불법등을 개설.

**세계 최대 외불(열반상)**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치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세계최대층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대층 탑인, 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개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쌀바위 전설**  
(중남기방문외계 계3710 기경)  
백제 침류왕때 유씨 할머니가 공들여 쌀도 나고자 손으로 얻어 미암(쌀바위)이라 불렀으며, 바위에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암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 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고성능 CCTV 카메라를 원하시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육천대행사 **에절스님**

**가찰보안**

전화문의  
DVR 모니터 250만원 (설치비포함)  
카메라 4대  
작동점검, 케이블 보수 A/S 및 정기점검 서비스

043-732-5560  
011-9422-8453

상담 받으시면 설치장소를 답사하고 설계를 마친후 설치작업이 시작됩니다.  
**인도시스템**

**정단 카메라 시스템으로 사찰재산 안전하게 !!!**